

## 보도자료



보도분류	브리핑( ) 보도자료 제공( ✓ )
보도일시	2022. 3. 7.(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과	스마트시티과
담당	과장 정윤희, 스마트인프라팀장 신무남, 담당 신은선 · 손지수(453-7472, 7475)

### “인천경제청-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TP

### 항공·공항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손잡는다

공항공사 수요기술 해결 및 실증 지원 협력파트너 프로그램 추진  
공항 인프라와 실증자금 지원으로 항공·공항산업 스타트업 성장에 큰 도움 기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테크노파크 3개 기관이 항공·공항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서면)을 8일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 3개 기관은 2020년부터 K컬처, K푸드, K투어리즘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인천공항 3K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협력 운영해 왔다. 3K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2020년 총 20개사의 스타트업을 지원하였으며 매출 165억원, 고용창출 44명, 투자유치 57억원의 성과를 내었다. 2021년에는 K디지털과 뉴딜 분야를 추가한 3K+ 스타트업 육성 사업으로 25개사의 스타트업을 지원하였고 올해 3월 사업이 마무리된다. 올해 4월에는 2022년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 인천국제공항과의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바탕으로 새롭게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스타트업파크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산업기술 연구원과 함께 4차산업 기술 기반 항공·공항산업 관련 스타트업의 기술발굴과 조기상용화를 돕는 협력파트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항공·

공항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실증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성사됐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항공사 수요기술 발굴과 협력파트너 프로그램 공동운영 △스타트업 현장 실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각 기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스타트업 지속성장 지원 등이다.
- 인천경제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천스타트업파크-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실증 자원 활용,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 자금(최대 5천만원 내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수요기술 개발과 성공적인 실증성과를 도출한 스타트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테크마켓 프로그램 참여 연계까지 검토 중이다.
- 인천경제청 이원재 청장은 “이번 협약은 항공·공항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함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역을 실증 장소로 확대해 나가 스타트업 실증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 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에도 공공(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민간(GS칼텍스, 바이브컴퍼니, 한림제약 등)과 폭넓게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